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고난과 인과응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당했을 때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고난이 대부분은 힘들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먼저 죄를 범하여서 받는 벌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 드렸듯이 인과응보로 인한 고난입니다. 어제는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며 악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한 벌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인 죄에 대한 형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이 이 땅에서 전혀 벌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악인들의 죄에 대하여 궁극적인 형벌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있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 형벌이 앞당겨 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악한 행실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인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9-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유다의 왕 아하스와 므낫세가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라는 말씀을 볼 수 있고 33장12절에는 므낫세 왕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크게 겸손하였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두 왕이 보여준 행동은 다른 것이었지만 어찌되었든 두 왕이 곤고하고 환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앞서 첫 번째 이유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 받기를 자처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11장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우리 인생들은 이내 자만하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실패하고 좌절하며 고난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나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당한다고 모두 이러한 결론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 당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유익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난 당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 본 사람만이 고난 당하는 사람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는 없으시지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십니다(히4:15).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을 통해 비록 우리들이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 앞에 두려워 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이 고난 당하는 이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비록 그 당

시에에는 좌절하고 낙심할 만큼 힘들고 아픈 것이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하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 갈 때에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